

「高瀬舟」와 <舟>

김옥지*
kimochi39@gmail.com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 「高瀬舟縁記」와 <舟> |
| 2. <舟>를 통한 장치 | 4. 마치며 |

主題語: 배(boat), 안락사(euthanasia), 자족(contentment), 내면의 문제(internalizing problem), 高瀬舟(takasebune)

1. 들어가며

모리 오가이(森鷗外. 이하, 오가이로 씀)는 「舞姫」¹⁾와 더불어 유학 3부작 발표이후 14년간의 공백을 두고, 「半日」²⁾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후기문학 활동을 재개한다. 「半日」는 오가이가 재혼한 부인과의 결혼생활을 담은 내용이다. 오가이의 첫 결혼은 집안의 강요에 의해 성사되지만, 1년 만에 이혼한다. 이혼한지 12년이 지나, 다시 어머니의 권유로 시게(志げ)와 재혼한다. 하지만 두 번째 결혼 또한 행복하지 못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오가이의 어머니와 부인과의 갈등이 가정불화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가족 간의 문제를 리얼하게 다룬 탓인지, 오가이는 「半日」를 생전 전집에 수록하지 못하게 한다.³⁾

오가이의 후기문학이⁴⁾ 상당한 공백기를 두고, 「半日」와 같이 작가의 사생활을 드러내는

* 부경대학교(박사과정 수료)

1) 鷗外森林太郎(1890) 「舞姫」『國民之友』第六卷第六九號新年附錄

2) 森林太郎(1909) 「半日」『スバル』第三號

3) 森まゆみ(2008) 『鷗外の坂』新潮文庫, p.390

(鷗外は『半日』につづき家庭の不和を『一夜』という小説に書いたらしいが、妻の懇願を入れてこの作品を破棄した。そのかわり「お辞儀をしない」しげが峰子にあやまり、家庭の状況が少しは好転したという。(略)その生前に『半日』は鷗外全集に収められなかった。)

(오가이는 『半日』에 이어 가정의 불화를 『一夜』라는 소설에 적었지만, 아내의 간원을 받아들여 작품을 파기했다. 그 대신에 「인사를 하지 않은」 시게가 미네코에게 사과하여, 가정의 상황이 호전되었다고 한다. 그의 생전에 『半日』는 오가이전집에 수록하지 못했다.)

4) 松本清張(1997) 『両像・森鷗外』新井信, p.146

(明治四十二年、鷗外は四十八歳であった。文学博士の学位を受与され(七月)、正四位に叙せられた

작품으로 시작된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이는 작가의 심적 고뇌가 문학의 원동력이 되어, 소설의 형태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가이는 「半日」 이후, 전집에 수록된 작품에는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방식을 취한다. 나아가 작가는 사생활뿐만 아니라, 의사로서의 의학상의 고민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가이는 자신의 생애 최대의 비극이라 할 수 있는, 둘째 아들의 사망을 작품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마흔에 재혼한 오가이는 부인과의 사이에 세 명의 자녀를 두는데, 세 아이 모두 백일해에 걸려, 아들은 사망하고, 장녀 또한 가망이 없어 <안락사>를 생각한다. 여기 오가이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식하는데, 이를 작품으로 나타내고자 했을 것이다.

이 같은 오가이의 경험이 소설「高瀬舟」⁵⁾에 <안락사>라는 테마로 나타나 있다.⁶⁾

<안락사>에 대해, 오가이는 의학자인 동시에 작가로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는지, 작품에 직접적인 표현은 피한다. 이에 「高瀬舟」에서 <안락사>의 행위를 살인죄로 나타내어, <안락사>를 행한 주인공 기스케는 살인자로서 <舟>에 실려 감옥으로 이송된다. 즉, <안락사>를 행한 기스케가 <舟>를 타면서, <舟>를 타기전의 행위에 대해, <舟>안에서 시간적으로 재조명하고 있다.

「高瀬舟」의 기스케는 친동생을 살해한 중죄인이지만, <舟>를 타면서 그의 모습은 다른 죄인들과 달리, 오히려 광채가 나는 존재로 묘사된다.

유독 기스케의 모습만 신성한 존재로 부각시키는 것은 그의 죄에 대한 의구심을 되짚어보려는 오가이의 의도가 있어 보인다. 즉, 기스케가 <舟>를 타기전의 모습과 <舟>를 타고나서의 모습에 차이를 두면서, 오가이는 자신의 의도를 이끌어 낸다. 여기 <舟>는 작가가 의도적인

(十月)。この年、創作、翻訳數篇をほとんど毎月發表した。

「半日」(三月「昴」)。「假面」(四月「昴」)。「追儼」(五月「東亞之光」)。「懇親會」(五月「美術之日本」)。「魔睡」(六月「昴」)。「大發見」(六月「心の花」)。「キタ・セクスアリス」(七月「昴」)。「鷄」(八月「昴」)。「金貨」(九月「昴」)。「金毘羅」(九月「昴」)。()

(明治 43년, 오가이는 48세가 되었다. 문학박사의 학위를 수여받아(7월), 정4위로 수여받았다(10월). 이 해, 창작, 번역수편을 거의 매월 발표하였다.

「半日」(5월「昴」)。「假面」(4월「昴」)。「追儼」(5월「東亞之光」)。「懇親會」(5월「美術之日本」)。「魔睡」(6월「昴」)。「大發見」(6월「心の花」)。「キタ・セクスアリス」(7월「昴」)。「鷄」(8월「昴」)。「金貨」(9월「昴」)。「金毘羅」(9월「昴」)。()

5) 森田太郎(1915)「高瀬舟」『中央公論』第三一年第一号

6) 意田信男(2009)『鷗外は何故袴をはいて死んだのか』公人の友社, p.122

(鷗外は西欧の言語に通じ、哲學・美學・文學にも通じて、當時としてはいち早く、社會主義にも注目し、醫學の世界では「高瀬舟」で、安樂死という現代にも通底する問題に注目して見せた。)

(오가이는 서구의 언어가 능숙하여, 철학·미학·문학에도 통달해, 당시로서는 일찍이 사회주의에도 주목하여, 의학 세계에서는 「高瀬舟」에서, 안락사라는 현대에서도 공통된 문제에 주목해 보였다.)

장치한 요소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기스케가 친동생을 죽인 <안락사>의 행위는 <舟>안에서 벌어진 사건도 아니고, 기스케의 행위가 살인죄로 성립된다하더라도, 살인죄를 지은 죄인이 반드시 <舟>에 태워져 이송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스케를 <舟>에 태워 그의 행위에 대한 의구심을 제시한 것은 작가의 의도로 보인다. 이를테면, 오가이는 <舟>를 타기전의 죄인의 행위에 대해, 과연 살인인가라는 스스로의 의구심을, <舟>라는 소재를 통해 제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오가이가 죄인의 행위, 즉 <안락사>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나,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문제의식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적인 요소가 필요했던 것이다. 오가이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의사로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어느 쪽도 표면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高瀬舟」의 <안락사>는 살인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로, 살인죄를 적용시키는데, 이에 대한 의구심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못해 하나의 장치를 둔다. 여기 오가이가 의도적으로 제시한 <舟>라는 요소가 나타나 있다.

결과적으로, 「高瀬舟」에서 오가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의구심이나 문제의식을 <舟>라는 장치를 통해 표현한 것이다. 오가이는 <舟>를 통해 드러난 자신의 문제를, 한편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코자 시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高瀬舟」의 <舟>는 <안락사>의 관점뿐만 아니라, 작가 신변에 일어난 여러 사건에 대한 의구심이나 문제의식을 표현하려는 요소로 나타난다. 이에 오가이의 신변을 다룬 「半日」를 비롯해, 「魔睡」등을 통해, 작가의 내면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2. <舟>를 통한 장치

「高瀬舟」는 오가이의 만년 작으로, 작가는 자신의 생을 돌아보며 회한의 경험을 표현한 작품이다. 우선, 「高瀬舟」에 나타난 <안락사>에 대해, 오가이는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오가이가 겪은 <안락사>에 대해, 다나카 미요코(田中美代子)는 오가이의 장녀인 마리의 증언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⁷⁾

7) 田中美代子(1997) 「森茉莉の見た鷗外」『鷗外の人と周辺』新曜社, p.271

(まず第一に不律の死は自然死ではなく、モルヒネによる安楽死であり、これはそもそも「母君」の提案によるものであったこと。そして不律に続いて茉莉もその注射を受けようとする寸前に、「奥さん」の父君がそこに来合わせたことによって、一命をとりとめ、その後ずんずん快方に向かったこと。この事実を前にして、当然「博士」と「奥さん」の心には、「もしもあの時注射をしなかったら、ひょっとすると不律も助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拭っても拭い去れない後悔の念が湧き起り、この両親の心を苛んだにちがいないだろう事である。そうなった以上、「母君」の提案は「奥さん」ばかりではなく、「博士」にとっても、生涯消えぬ疑惑と遺恨の種となったはずである。)

(우선, 후리쓰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 모르핀에 의한 안락사이고, 이것은 애초 「어머니」의 제안에 의한 것. 그리고 후리쓰에 이어 마라도 그 주사를 놓기 직전에 「부인」의 아버지가 거기에 들어오면서, 하나의 목숨은 건져, 그 뒤로 점점 완쾌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겪고서, 돌연 「박사」와 「부인」의 마음에는 「만약, 그 때 주사를 놓지 않았다면, 어쩌면 후리쓰는 살지 않았을까?」하는,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후회가 솟구쳐, 양친의 마음을 힘들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이상, 「어머니」의 제안은 「부인」뿐만 아니라, 「박사」로서도 생애 지울 수 없는 의혹과 회한의 씨앗이 되었을 것이다.)

재혼한 오가이는 부인 시게(志げ)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아들 후리쓰가 생후 6개월경 백일해에 걸려 사망한다. 그런데 아들의 죽음이 병으로 인한 자연사가 아니라, 오가이 어머니의 제안에 의한 <안락사>라고 한다. 당시 아들뿐만 아니라, 장녀 차녀 모두 백일해에 걸렸으나, 어린 후리쓰와 장녀 마리는 병의 상태가 심해,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오가이 어머니가 모르핀 주사 투여를 제안한다. 그래서 후리쓰에게 모르핀을 투여하고, 이어 마리에게 주사를 놓으려고 할 때, 오가이의 장인이 와서 만류하는 바람에 마리는 살아남았다. 이 일이 오가이에게는 생애 지울 수 없는 의혹과恨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오가이는 아들의 모르핀에 의한 <안락사>를 허락하는데, 이는 의사로서의 판단일 것이고, 한편 모르핀 주사를 맞지 않아 살아남은 큰딸을 보면서, 아들의 <안락사>에 대해 의혹과 유감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오가이의 <안락사>의 견해로, 「高瀬舟」에 나타나 있다.

「高瀬舟」는 교토의 중죄인들을 외딴 섬으로 실어 나르는 다카세부네(高瀬舟)⁸⁾라는 <舟>를

8) ① 日本大辭典刊行會(1995)『日本國語大辭典』小學館, p.1388

(近世以後、川船の代表として各地の河川で貨客の輸送に従事した船。京都・伏見間の高瀬川を就航のものは箱造りの十五石積で小型を代表する。

근세 이후, 강배의 대표로서 각 지역에서 하천에서 화물과 사람의 수송에 종사는 배. 교토・후시미사이

탄 죄인 기스케의 이야기이다.

「高瀬舟」에 나타난 <舟>는 갖은 중죄를 지은 죄인들을 태워, 외판섬 감옥으로 이동시키는 수단이다.

当時遠島を申し渡された罪人は、もちろん重い科を犯したものと認められた人ではあるが、決して盗みをするために、人を殺し火を放ったというような、獐惡な人物が多数を占めていたわけではない。高瀬舟に乗る罪人の過半は、いわゆる心得違いのために、思わぬ科を犯した人であった。有りふれた例をあげてみれば、当時相對死と言った情死をはかって、相手の女を殺して、自分だけ生き残った男というような類である。⁹⁾

(당시 원도를 인도받은 죄인은, 물론 중죄를 지은 죄인으로 인정된 사람도 있지만, 결코 도둑질을 위해 사람을 죽이거나 불을 지르거나 하는 영악한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카세부네에 탄 죄인 과반수는 이른바 실수로 생각지도 못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다. 흔한 사례로서, 당시 동반자살이라는 정사를 시도한 남자가 여자는 죽고 살아남은 자신은 죄인이 된 부류들이다.)

즉, 감옥으로 이송시키는 <舟>를 탄 죄인들의 죄는 주로 도둑질, 살인, 방화 등으로, 모두 중죄로 인정된다.

중죄인으로 인정받은 그들은 <舟>를 타면서, 죄를 지은 영악한 인물이 아니라, 그들의 처지를 부각시켜, 중죄를 다소 반감시키는 듯 보인다. 또한 도둑질, 살인, 방화 등의 죄는 <舟>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舟>를 타기전의 사건이다. 게다가 교토의 중죄인들이 모두 <舟>에 태워져 감옥으로 이송되는 것도 아닌데, 작가오가이가 그들의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舟>에 태워, 그들의 행위에 대해 재조명한 것은 주목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여기 오가이는 주인공 기스케의 행위 또한 <舟>를 통해 재조명하고 있다.

기스케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어린 동생과 거리에서 동냥을 해가며 힘들게 살아간다. 어른이 된 형제는 막노동을 하면서 근근이 살아가는데, 어느 날 동생이 결핵에 걸려 가망이 없는 상태가 된다. 동생은 힘들게 고생하는 형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죽으려고, 자신의 목에 칼을 찔렀으나 이내 숨이 끊어지지 않아 고통스러워한다. 이 때, 일을 마치고 돌아온 기스케는 동생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칼을 뽑아 준다. 동생은 이내 숨을 거두고,

의 다카세가와를 취향하는 것은 상자모양의 150석 정도로, 소형을 대표한다.)

② 森鷗外(1977) 「高瀬舟縁起」『鷗外全集十六卷』岩波書店, p.298

(徳川時代には京都の罪人が遠島を言い渡されると、高瀬舟で大阪へ回されたそうである.)

도쿠가와시대에는 교토의 죄인이 먼 섬으로 인도되면, 高瀬舟에 태워 오사카로 보내졌다고 한다.)

9) 森林太郎(1972) 「高瀬舟」『森鷗外全集十六卷』岩波書店, p.281

(이하, 본문 인용은 「高瀬舟」『全集 十六卷』로 표기함. 밑줄은 논자에 의함(이하, 동일))

기스케는 살인자로 언도되어 다카세부네(高瀬舟)에 타게 된다.

여기 <舟>를 타기 전의 기스케는 친동생을 죽인 살인자로서 다른 죄인들과 다를 바가 없지만, <舟>를 타면서 그의 모습은 그들과 달리 묘사된다.

その額は晴れやかで目にはかすかなかがやきがある。(略)この時庄兵衛は空を仰いでいる喜助の頭から毫光がさすように思った。(「高瀬舟」『全集 十六卷』, p.282)

(그의 이마는 환하고 눈에는 약간의 광채가 있다. (생략) 쇼베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기스케의 머리에서 후광이 비치는 듯 느껴졌다.)

<舟>를 탄 기스케는, 신세타령만 하는 다른 죄인들과는 달리 오히려 평온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달빛으로 얼굴은 환하고, 후광이 비친다.

기스케는 친동생을 죽인 중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을 다른 죄인들과 다르게 묘사한 것은, 기스케의 죄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 작가의 의도로 보인다. 즉, 동생의 자살을 도와 죽음에 이르게 한 기스케의 행위에 대해, 그는 과연 죄인인가라는 의구심을 제시한 것이다. 오가이는 <안락사>의 문제를, <舟>를 탄 기스케를 통해 반문한다. 그것은 <안락사>를 인정하려는 의도로, 기스케는 동생을 죽인 죄인이 아니라, 동생의 고통을 덜어준 존재로 보는 오가이의 관점이 투영된 것이다.

이 같은 관점은 오가이의 번역소설 「罪人」¹⁰⁾에 묘사된 주인공의 모습에서도 나타나, 「高瀬舟」와의 관련을 배제할 수 없다.

こんな風な事をもう少ししゃべった。そして物を言うと、胸が軽くなるように感じた。

「実に己は義務を果すのだ」と腹の内で思った。始めてそこに気が附いたというような心持で。

そしてまた自分が英雄だ、自己の利害を顧みずに義務を果す英雄だと思った。

奥さんは夫と目を見合せて同意を表するように頷いた。しかしそれは何と返事をして好いか分からないからであった。

「本当に嫌でも果さなくてはならない義務なのだろう。」奥さんもこんな風に自ら慰めて見て、深い溜息を衝いた。¹¹⁾

(「사실은 나는 의무를 다한 것이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비로소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한편으로 자신이 영웅이다, 자기의 이익을 해아리지 않고 의무를 다하는 영웅이라고 생각했다.

10) 森鷗外(1910) 「罪人」『東亞之光』十九篇

11) 森林太郎(1972) 「罪人」『鷗外全集 第六卷』岩波書店, p.556

부인은 남편과 눈을 마주치며 동의를 표하듯이 끄덕였다. 그러나 그것을 무엇으로 답하면 좋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말로 싫더라도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일 것이다.」부인도 그런 식으로 스스로 위로하고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

「罪人」의 주인공은 살인죄를 지어 사형이 언도된다. 사형장에 끌려가 집행되기 직전, 너무나 평온한 표정으로 자신이 저지른 살인은 ‘사실은 나는 의무를 다한 것’이며, ‘정말로 하기 싫지만 해내야 할 의무’였다고 한다.

이 한마디는, 오가이가 기스케의 행위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으로 여겨진다. 작가는 「高瀬舟」 이전에 번역한 「罪人」의 주인공을 기스케의 모습으로 재현시키고 있는 듯하다. 말하자면 기스케의 행동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안락사>를 인정하려는 작가의 관점을 나타낸 것으로 본다. 결국, 오가이가 기스케의 행위에 대해 <舟>를 통해 나타내고자 한 것은 <안락사>를 인정하려는 의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안락사>를 인정하려는 오가이의 의도는, 「高瀬舟」의 발표에 앞서, 「高瀬舟」의 집필취지와 연유를 기록한 「高瀬舟緣記」¹²⁾에 나타나 있다.

ここに病人があつて死に瀕して苦しんでいる。それを救う手段は全くない。あの苦しみを長くさせておかずに、早く死なせてやりたいという情は必ず起こる。それゆえやらずにおいて苦しませていなくてはならない。従來の道德は苦しませておけと命じている。しかし医学社会には、これを非とする論がある。¹³⁾

(여기 환자가 있고, 죽음에 임박하여 괴로워하고 있다. 그를 구할 방법은 전혀 없다. 그런 괴로움을 길게 두지 않고, 빨리 죽게 하고픈 마음은 반드시 생긴다. 그래서 그냥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종래의 도덕은 고통스러워하게 두도록 권한다. 하지만 의학사회에는 그것을 잘못된 논리라고 한다.)

즉, 오가이가 <안락사>를 인정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는 의사로서의 입장일 것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간과할 수 없었던 오가이는 「高瀬舟」의 결말에 <안락사>를 살인죄로 결론짓는다.

이는 오가이가 <안락사>를 인정하는 관점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통한 스스로의 의구심을 드러낸 것이다.

12) 森林太郎(1917) 「高瀬舟緣起」『心の花』第二十卷 三号

13) 森林太郎(1972) 「高瀬舟緣起」『鷗外全集十六卷』岩波書店, p.300

庄兵衛の心の中には、いろいろに考えてみた末に、自分よりも上のものの判断に任すほかないという念、オオトリテエに従うほかないという念が生じた。庄兵衛はお奉行様の判断を、そのまま自分の判断にしようと思ったのである。(「高瀬舟」『全集 十六卷』, p.291)

(쇼베의 마음속에는, 여러 고민 끝에, 자신보다도 윗사람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 최고 윗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쇼베는 관리의 판단을 그대로 자신의 판단으로 여겼던 것이다.)

「高瀬舟」에는 작중 윗사람의 판단을 표면화시켜, <안락사>의 행위를 결국 살인죄로 인정한다.

오가이가 <안락사>를 인정하지 못하고 살인죄로 결론짓는 것은,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관점을 배제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오가이가 백일해에 걸려 가망이 없던 자신의 아들과 딸을 모르핀에 의한 <안락사>를 허락하지만, 장인의 만류로 <안락사>를 허락하지 못한 딸은 병이 호전되어 살아난 경험일 것이다. 이에 오가이는 자신이 허락하여 <안락사>에 의해 사망한 아들의 죽음이 생애 지울 수 없는 고통이었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오타니 고이치(大谷晃一)가 설명하는, <안락사>를 안심입명(安心立命), 즉 평온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본다.¹⁴⁾

そして、『高瀬舟』の喜助の弟は、晴れやかな目をして、さもうれしそうになって、息が切れた。いずれもが、その底に安心立命のことをひそめている。

(그래서, 『高瀬舟』의 기스케의 동생은, 환한 눈으로, 틀림없이 기쁜 듯이, 숨이 끊어졌다. 어쨌든, 그 바탕에 안심입명을 감추고 있다.)

오가이는 <안락사>를 허락하지 않은 딸이 건강을 되찾는 것을 보고, <안락사>를 허락한 아들의 죽음을 지켜본 통한의 경험이 있다. 그 같은 오가이의 입장에서, 아들의 죽음이 평온한 마음으로 임종하는 안심입명(安心立命)으로 본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오가이는 기스케의 <안락사>의 행위를 최고 윗사람의 판단에 의한 살인죄로 결론짓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정(李呈)의, 「高瀬舟」에는 <안락사>를 찬성하는 관점만을 밝히고 있다는 설명은, 본고의 견해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¹⁵⁾

14) 大谷晃一(1983) 『鷗外、屈辱に死す』人文書院, p.27

15) 李呈(2008) 「高瀬舟の悲」『綿陽示范學院學報』第27卷 第10期

筆者は安樂死の本質、概念及び特徴の調べによって、『高瀬舟』の中の「安樂死」に賛成する觀點を明らかに論述してみた。

(필자는 안락사의 본질, 개념 및 특징의 조사에 의해, 『高瀬舟』안에 「안락사」에 찬성하는 관점을 분명하게 논술해 보았다.)

왜냐하면, 기스케의 <안락사>의 행위는 결국 살인죄로 결론지어, 부정적인 견해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가이가 직접 경험한 <안락사>에 대한 의혹과 유감을 표현한 것이다. 이에 이정(李呈)의 <안락사>를 찬성하고만 있다는 관점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결과적으로, 「高瀬舟」에는 <안락사>에 대해 인정하는 측면과 인정하지 못하는 측면이 나타나 있는데, 오가이로서는 두 관점을 모두 표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안락사>의 두 관점을 「高瀬舟」에서는 <舟>를 탄 주인공을 통해 표현하는데, 여기 <舟>는 주인공의 <안락사>의 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舟>를 통해 재조명한 것은 오가이가 의도한 요소이다. 말하자면, <안락사>의 두 관점은 작가자신이 문제시 여기던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에는, 하나의 장치가 불가피하여, <舟>라는 요소를 설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3. 「高瀬舟緣記」와 <舟>

오가이의 후기문학「高瀬舟」는 작가자신이 인식한 문제의식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를테면, 오가이가 의사로서의 입장이든, 개인적인 경험에서든, 인식한 문제와 의혹을 제시하는데, 여기 <안락사>에 대한 견해가 나타나 있다. 「高瀬舟」에서 <안락사>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혹제기는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舟>라는 요소를 통해 표현한다.

이와 같이 오가이가 <舟>에 주목한 것은, 「高瀬舟」의 집필연유를 설명한 「高瀬舟緣記」의 서두에도 나타나 있다.

京都の高瀬川は、五条から南は天正十五年に、二条から五条までは慶長十七年に、角倉了以が掘ったものだそうである。そこを通う舟は曳舟である。元来たかせは舟の名で、その舟の通う川を高瀬川と言うのだから、同名の川は諸国にある。¹⁶⁾

16) 森林太郎(1972) 「高瀬舟緣記」『鷗外全集十六卷』岩波書店, p.299

(교토의 다카세가와(오조에서 남쪽은 천정15년에, 이조에서 오조까지는 경장17년에, 스미노쿠라 료이가 파낸 강이라고 한다. 거기를 다니는 배는 히키후네라는 배이다. 원래 다카세는 배의 이름이고, 그 배가 다니는 강을 다카세가와라고 불렀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강은 여러 지역에 있다.)

즉, 교토의 다카세가와(高瀬川)라는 강 이름은 스미노쿠라 료이가 강을 만든 후, 그 강에 다니던 <舟>이름 ‘다카세(高瀬)’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카세(高瀬)’라는 <舟>가 다니는 강은 모두 다카세가와(高瀬川)로 불린다고 한다.

강의 이름이 <舟>이름에서 유래된 내용으로 시작되는 서두에서, 강보다는 <舟>를 먼저 의식한 오가이의 관점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舟>를 의식한 오가이가, 자신이 인식한 문제와 의혹을 <舟>라는 매개를 통해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다카세(高瀬)’라는 <舟>를 탄 죄인 기스케를 통해, 자신의 문제와 의혹을 제기한다.

あるときこの舟に載せられた兄弟殺しの科を犯した男が、少しも悲しがついていなかった。その子細を尋ねると、これまで食を得ることに困っていたのに、遠島を言い渡された時、銅錢二百文をもらったが、錢を使わずに持っているのは始めだと答えた。(略) 錢を待ったことのない人の錢を持った喜びは、錢の多少には関せない。人の欲には限りがないから、錢を持ってみると、いくらあればよいという限界は見いだされないのである。17)

(어느 날 이 배를 탄 동생을 살인한 남자가,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다. 그것을 자세히 물으니, 여태까지 먹을 게 없어 곤란했는데, 원도로 인도받을 때, 동전 이백문을 받았지만, 돈을 쓰지 않고 지닌 적은 처음이라 대답했다. (중략) 돈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의 돈을 가진 기쁨은 돈의 적고 많음에 관계없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보면, 얼마나 있으면 좋다는 한계는 가늠할 수 없다.)

즉, 기스케는 죄인의 신세지만, 평생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아온 그가 이백문이라는 돈을 처음 가지게 되어 기뻐한다.

이는 오가이가 생활 속에 직면한 경제관념에 대한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高瀬舟」에 기스케의 경제관념을 통해 지적한 것이다.

「高瀬舟」에서 <舟>를 탄 대부분의 죄인들은 밤새 울며 외딴 섬으로 끌려가는 것을 한탄한다. 하지만 기스케는 <舟>안의 다른 죄인들과 달리, 그동안의 삶이 너무나 피폐했기 때문에, 죄인에게 주는 돈 이백문에 기뻐하는 표정을 짓는다.

17) 森林太郎(1972) 「高瀬舟縁起」『鷗外全集十六卷』岩波書店, pp.299-300

しかしいかにも桁を違えて考えてみても、不思議なのは喜助の欲のないこと、足ることを知っていることである。 (「高瀬舟」『全集三卷』, p.283)

(그러나 아무리 자리수를 다르게 생각해도, 이상한 것은 기스케가 욕심이 없는 것, 만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백문에 기뻐하는 기스케의 표정은 ‘만족을 안다(足ることを知っている)’는 것으로, 즉 기스케의 <知足>의 의미는 경제적인 관념을 나타낸 것이다. 이백문에 <知足>하는 기스케의 모습에 타가세부네(高瀬舟)를 이송하는 직책을 맡은 쇼베는 의아해 한다.

여기 오가이의 경제관념이 나타나 있다. 이백문에 만족하는 기스케를 보고 쇼베가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은, 관료 쇼베를 통한 오가이의 관점이 투영된 것이다. 오가이는 자신 또한 관료로서 급여 받아 생활하지만,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高瀬舟」의 쇼베는 기스케의 <知足>의 의미를 상기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떠올린다. 쇼베의 아내는 남편의 월급이 부족하다며 늘 불평하는 만족을 모르는 존재이다. 이에 비해, 기스케는 관료의 월급과는 자릿수가 다른 상당히 적은 액수 이백문을 받지만, 만족하고 있다.

즉, 쇼베의 아내는 <知足>를 모르는 존재로, 기스케와 대조적으로 묘사된다.

이와 같이 「高瀬舟」의 <知足>을 모르는 아내에 대한 쇼베의 지적은, 오가이가 자신이 직면한 경제관념을 나타낸 것으로, 이는 작가의 자전적인 작품 「半日」에도 나타나 있다.

「おれの年俸は、講座給を入れて二千七百円なのだ。それでこの位な暮らしをして、夏と冬とお前の六十円ずつ着物の代を纏めて出して上げるのは、お母様が節儉して遣って下さるから出来るのだ。」¹⁸⁾

(나의 연봉은 강의료를 합해 이 천 칠 백 엔이다. 그래서 이 정도의 생활을 하고, 여름과 겨울에 육십엔 씩 당신의 기모노 값을 대주는 것은, 어머니가 절약해서 사용해 주시기에 가능한 것이다.)

「半日」에서의 부인 또한 남편의 급여에 비해 과도한 지출을 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요컨대, 「半日」의 부인의 경제관념의 문제는, 오가이 신변의 문제로서 「高瀬舟」의 <知足>을 모르는 아내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知足>을 모르는 아내의 경제관념은 「半日」에서 가족 간의 문제로 야기된다. 이러한 가족 간의 문제에 대해, 다케모리 덴유(竹盛天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오가이는 부인의 경제에 관한 얘거나 시어머니에 대한 불평 등, 현실적인 문제를 피하려고만 한다는 것이다.¹⁹⁾

18) 森林太郎(1972) 「半日」『森鷗外全集一卷』岩波書店, p.64

『半日』という作品は、「奥さん」が夫の高山にむけて、姑への嫌悪の情を露骨に投げつけ、それに対応する高山のことばや心理説明によって、全体の状況が浮き上がるように仕組まれている。(略) 鷗外はこういう「奥さん」の科白を、可愛い女の子が駄々をこねると言った風の叙述でちらりと躲そうとして言ってもいい。生々しい「財産」や「會計」の問題のもつ現実的臭いを薄め弱めようとしている。

(『반나절』이라는 작품은, 「부인」이 남편 다카야마에게, 시어머니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에 대응하는 다카야마의 말이나 심리설명에 의해, 전체 상황이 부상되도록 짜여 있다. (생략) 오가이는 「부인」의 꾸밈을, 귀여운 아이가 응석을 부린다는 식의 서술로, 슬쩍 피하려 한다. 실질적인 「재산」「회계」의 문제가 되는 현실적인 불편함을 희석시키고 한다.)

즉, 오가이는 「재산」이나 「회계」의 현실적인 문제를 피하려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오가이는 현실에서 피하기만 했던 경제의 문제를 「高瀬舟」에서 <知足>의 문제로 제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경제관념을 나타낸 <知足>의 문제는, 부인과의 갈등・고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오가이 삶 자체의 <知足>을 지적하는 듯하다. 즉 작가 스스로의 삶에 ‘만족을 안다(足ることを知っている)’ 것에 반문한다.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오가이 신변의 문제는 「魔睡」²⁰⁾에서도 나타나 있다. 「魔睡」는 정신과 의사가 최면상태의 환자를 추행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오쓰카 미호(大塚美保)는 작중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최면술에 의해 행동한 것은, 일종의 <간통>으로 간주하며, 오가이가 자신의 아내에 대한 관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한다.²¹⁾

鷗外の妻しげ子の身に実際に起きた事件に関連するといわれ、磯貝のモデルとされる医学者、三浦謹之助の行状暴露という一面を持つ。(略)磯貝との二人きりでいた間に起きたことの真相は、追求のしようがない。可能性があるが証拠がない、妻の婚外性交渉。それは睡眠術によって操られた人間の、所動とも自発とも定めがたい(6章でくわしく触れる)、一種特異な<姦通>である。

(오가이의 아내 시게코의 신변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관련된, 이소가이의 모델이 된 의학자, 미우라 긴노스케의 행위를 폭로한다는 일면을 가진다. (생략) 이소가이와 두 사람만 있던 공간에서 일어난 일의 진상은, 규명할 수가 없다.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없다. 아내의 혼외 성 교섭.

19) 竹盛天雄(1984) 「書くことの位置」『その紋様』小沢書店, pp.101-107

20) 森林太郎(1909) 「魔睡」『スバル』第六号

21) 大塚美保(2001) 「鷗外『魔睡』のスクランダル—<姦通>・語り・テキスト間相互関連性を視座として—」『聖心女子大・論叢』九七巻 九月號

그것은 최면술에 의해 조종된 인간이, 수동적이라고도 자발적이라고도 하기 어렵다. 일종의 특이한 <간통>이다.)

「魔睡」는 오가이가 작중 이소가이(磯貝)의 모델인 의사 미우라(三浦)의 행위를 폭로할 의도로 발표한 작품이지만, 아내에 대한 감정도 담겨 있다.

이를테면, 작가는 아내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魔睡」에 드러낸 것이고, 그것은 「半日」에 묘사된 오가이 가족 간의 문제와 맥을 같이한다. 결국 오가이의 삶에 대한 <知足>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高瀬舟」에 나타난 <知足>은 단순히 경제에 관한 관점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知足>의 문제를 드러낸다.

이러한 자신의 삶을 반영하는 <知足>의 문제 또한, 오가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못해 「高瀬舟」의 <舟>를 통해 묘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高瀬舟」는 <知足>과 <안락사>의 테마로 작가의 신변의 문제를, <舟>라는 장치를 통해 드러낸 작품이다.

이 같은 견해에 대해, 다카하시 요시다카(高橋義孝)는 「高瀬舟」는 오가이 꿈꾸던 인간상을 묘사한 작품이라고 한다.²²⁾

「渋江抽齋」の解説でも、『高瀬舟』と『寒山拾得』とで、鷗外が五十年の生涯に夢みた人間像の輪郭が定まった。それに歴史的肉づけをしてみせたのが、『渋江抽齋』である。

(「渋江抽齋」의 설명에서도, 「高瀬舟」와 「寒山拾得」에서, 오가이가 오십년 생애에 꿈꾸던 인간상의 윤곽이 정해졌다. 그것이 역사적인 자료를 덧붙여 낸 것이 「渋江抽齋」이다.)

즉, 오가이가 오십년 생애, 자신이 꿈꾸던 인간상의 윤곽이 「高瀬舟」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이는 「高瀬舟」에서는 오가이가 자신의 신변에 대해 스스로 인식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는 견해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케우치 겐지(池内健次)가 설명하는, 「高瀬舟」는 자신과 싸우는 것이 없는 작품이라는 견해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²³⁾

そこに自己否定、歴史との闘いはない。それは自己と闘うことのない文学である。そこにして
もたしかに鷗外は鷗外として、真摯に誠実に、わが庭を耕した。だれも及ばないような精進の
末に、五十歳を越えた鷗外が私たちに与えられてくれる畠の稔りは、「阿部一族」「安井夫人」「高

22) 高橋義孝(1957) 「『渋江抽齋』は、鷗外が創造しえたもっとも小説らしい小説」『森鷗外』雄山閣, p.227

23) 池内健次(2001) 『森鷗外と近代日本』ミネルヴァ書房, p.288

瀬舟「寒山拾得」、「洪江抽齋」と、どれも類まれな見事さである。

(거기에 자기부정, 역사와의 싸움은 없다. 그것은 자기와 싸우는 일이 없는 문학이다. 그렇다고 해도 분명 오가이는 오가이로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나의 정원을 경작했다. 누구도 미치지 못하는 정진을 한 끝에, 오십 세를 넘긴 오가이가 우리들에게 부여한 발의 열매는, 『阿部一族』 『安井夫人』 『高瀬舟』 『寒山拾得』 『洪江抽齋』로, 어느 것도 훌륭하다.)

말하자면, 「高瀬舟」는 오가이가 자기부정도 하지 않으며, 자신과 싸우는 것이 없는 문학의 결실이라고 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오가이는 자기부정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부정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에 「高瀬舟」의 <舟>를 통해 드러낸 것이다.

즉, <안락사>의 문제, <知足>의 문제 등, 작가가 인식한 신변의 문제의식을 <舟>를 통해 제시한다. 이러한 신변의 문제에 대해, 오가이는 여전히 문제로 인식하는 의혹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高瀬舟」의 마지막 행의 다카세부네(高瀬舟)의 향방을 어둡게 묘사하여, 석연치 않은 결과로 나타낸다.

次第にふけてゆくおぼろ夜に、沈黙の人二人を載せた高瀬舟は、黒い水の面をすべって行
た。

(차츰 깊어가는 어슴푸레한 밤에, 침묵한 두 사람을 태운 高瀬舟는 검은 수면을 미끄러져 갔다.)

(「高瀬舟」『全集 十六卷』, p.291)

다카세부네(高瀬舟)의 어두운 향방은, <안락사>와 <知足>의 문제의식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풀지 못한 오가이의 심정을 나타낸 것이다.

즉, <안락사>는 의사로서의 관점과 실제 경험을 통한 관점이 상반된 결과를 도출하고, <知足>은 경제관념뿐만 아니라, 작가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사는지 반문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한 오가이는, <舟>의 장치를 통해 제시하고 해결코자 모색하는 관점을 나타낸다.

이를테면 「高瀬舟」의 <舟>는 작가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장치이다. 이 같은 <舟>를 통해, 오가이는 자신을 고찰하여, 자신의 문제를 여러 방법으로 모색한 시도를 마련한다.

3. 마치며

1915년에 발표한 「高瀬舟」는 오가이의 만년 작으로 자신의 생을 회고하며 지난날의 경험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高瀬舟」는 죄인의 이야기가 <舟>를 통해 재구성되는 내용으로, 여기 <안락사>와 <知足>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죄인 기스케를 통해 나타난 <안락사>와 <知足>의 행위는 <舟>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舟>를 통해 재조명된 것은 오가이가 의도한 장치라는 것이다. 오가이가 의도한 <舟>의 장치는 작가의 삶에서 직면한 내면의 문제, 즉 <안락사>와 <知足>에 대한, 스스로의 의구심을 표출하기 위한 기법이다.

<안락사>의 문제는 오가이로서는 가장 힘든 시기의 경험으로, 차남을 잃고 장녀마저 잃을 뻔 했던, 자신의 결단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타낸 것이다. 오가이는 자신이 경험한 <안락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혼한 부인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자신의 삶에 대한 <知足>의 관점 또한 드러낸다.

이러한 경험을 「高瀬舟」에 제시하는데, 작가는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결코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舟>를 통한 방식을 취한다.

즉, <안락사>와 <知足>의 관점은 작가가 직면한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방법으로 <舟>를 두고 있다. 요컨대, 오가이는 난해한 결과에 대한 자신의 고민을 <舟>를 통해 제시하고, 해결점을 찾아 가는 장치에 <舟>를 두고 있었다.

【参考文献】

<텍스트>

森林太郎(1972) 『森鷗外全集』岩波書店

<간행물 및 논문>

鷗外森林太郎(1890) 「舞姫」『國民之友』第六卷第六九號新年附錄

森林太郎(1900) 「鷗外漁史とは誰ぞ」『福岡日日新聞』

_____ (1909) 「半日」『スバル』第三號

_____ (1909) 「魔睡」『スバル』第六号

森鷗外(1910) 「罪人」『東亞之光』十九篇

森林太郎(1915) 「高瀬舟緣起」@@@

_____ (1915) 「高瀬舟」『中央公論』第三一年第一号

高橋義孝(1957) 「『渋江抽齋』は、鷗外が創造したもっとも小説らしい小説」『森鷗外』雄山閣

- 大谷晃一(1983)『鷗外、屈辱に死す』人文書院
竹盛天雄(1984)『書くことの位置』『その紋様』小沢書店
松本清張(1997)『両像・森鷗外』新井信
池内健次(2001)『鷗外と 近代日本』『森 鷗外と 近代日本』ミネルヴァ書房
大塚美保(2001)『鷗外『魔睡』のスクランダル—<姦通>・語り・テキスト間相互関連性を視座として—』『聖心
女子大・論叢』九七卷九月號
田中美代子(2006)『獨逸日記 小倉日記』『森鷗外全集13』ちくま文庫
森まゆみ(2008)『鷗外の坂』新潮文庫
李呈(2008)『高瀬舟の悲』『綿陽示范學院學報』第27卷第10期
意田信男(2009)『鷗外は何故袴をはいて死んだのか』公人の友社

논문투고일	: 2012년 12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2년 12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01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01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1월 21일

〈要旨〉

「高瀬舟」와 <舟>

모리 오가이(森鷗外, 이하, 오가이로 씀)는 14년간의 공백을 두고, 「半日」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후기문학 활동을 재개한다. 오가이의 후기문학이 「半日」과 같이 작가의 사생활을 드러내는 작품에 주목한다. 이는 작가의 번민과 심적 고뇌가 문학의 원동력이 되어, 소설의 형태로 표현된 것이다. 가족 간의 문제를 리얼하게 다룬 「半日」를 생전 전집에 수록하지 못하게 한 오가이는, 이후에 발표하는 작품에는 자신의 문제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가이는 자신의 생애 최대의 비극이라 할 수 있는, 둘째 아들의 사망사건은 아들의 사망은 자연사가 아니라, <안락사>에 의한 것과 「半日」 「魔睡」에 묘사된 자신의 신변에 관한 <知足>의 문제를 「高瀬舟」에 표현한다. 즉, 사생활의 문제라든가 의사로서의 의학상의 고민을 다루는데, 「高瀬舟」에는 직접적으로 표현보다는 간접적인 표현을 취하는데, 여기 <舟>라는 요소가 있다.

결과적으로, 「高瀬舟」에서 오가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의구심이나 문제의식을 <舟>라는 장치를 통해 표현한 것이다. <안락사>와 <知足>의 행위는 <舟>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舟>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오가이의 의지가 보인다. 이에 「高瀬舟」의 <舟>는 오가이의 의도적인 장치로 여겨진다.

Takasebune and Boat

Mori Ōgai resumed the latter years of his literary activities from 『Hanjitsu (半日)』 onwards after his fourteen-year hiatus. Like 『Hanjitsu』 his latter-year literatures highlighted primarily the author's personal lifestyles.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such a tendency was driven by the author's agony and mental sufferings distresses into being described in the form of novel in the long run. Ōgai did not include in his lifetime collection of literatures 『Hanjitsu』 that deals with family problems and conflicts emerging between family members in a realistic manner and later started choosing not to surface his own personal problems directly in his novels.

From this perspective, Ōgai described in 『Takesebune(高瀬舟)』 two important matters associated with him personally: Firstly, the incident of the death of his second son in which his son died not for natural causes but through <euthanasia>, and secondly, the matter of <chisoku (知足)> to do with his personal safety described in 『Hanjitsu』 and 『Majikusu(魔睡)』. Namely, 『Takesebune』 dealt with problems with the author's personal life and his agony medical deliberation as a surgeon by describing them not straight forwardly but indirectly, in whose process such a literary tool as <boat> plays a figurative role.

In conclusion, Ōgai described in 『Takesebune』 vaguely and indistinctly-surfacing doubts or the awareness on certain matters through <boat(舟)> as a literary tool. Despite that the acts of <euthanasia> and <chisoku> are not directly relevant to <boat>, Ōgai's intent on raising a question and finding out the resolution to it through <boat> is detectable in this novel. Therefore, <boat> in 『Takesebune』 is perceived as a literary tool the author devised deliberately.